

샌더스 3연승 뒷심 ‘슈퍼대의원’ 움직일까

대의원 수 힐러리에 크게 뒤져 “공화 트럼프와 맞대결 유리” 호소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이미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던 슈퍼대의원들의 태도가 변할지 주목된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마감된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3개주 경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워싱턴에서는 45%포인트, 알래스카에서는 60%포인트, 하와이에서는 40%포인트가 넘는 격차로 압승을 거두면서 꺼져가던 역전승 가능성의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샌더스 의원은 대의원 수에서 1004명을 기록,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1712명)보다 여전히 크게 뒤지고 있다.

주말 3연승이 추격을 위한 동력은 될 것이지만 뒤집기의 계기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슈퍼대의원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는 상·하원 의원, 주지사, 전직 대통령 등 당내 거물급 인사를 가리킨다.

이들 슈퍼대의원 대다수는 현재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샌더스 의원은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현재 슈퍼대의원들 중 무려 469명이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는 반면 샌더스 의원 쪽에 선 이들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슈퍼대의원들이 나중에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까닭에 샌더스 진영에서는 이들의 마음을 돌릴 방안을 짜내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슈퍼대의원 제도는 당내에서 부적격하다고 보는 후보를 배제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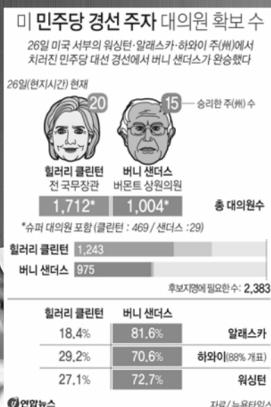
퍼대의원들이 경선 결과를 부정하는 쪽으로 힘을 발휘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샌더스 의원은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뒷심을 확인한 슈퍼대의원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8일(현지시각) CNN방송에 출연해 “이제 우리가 탄력이 붙고 있다”며 “많은 슈퍼대의원이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공화당 대선후보가 맞붙는 본선에서 자신이 클린턴 전 장관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슈퍼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와의 가상 맞대결 분석을 볼 때 자신이 클린턴 전 장관보다 더 큰 차이로 승리한다는 게 샌더스 의원의 주장이다.



26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주) 메디슨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천하를 도모한 유비

유비(劉備, 161-223)의 자는 헌덕으로 위의 조조, 오의 손권과 함께 삼국시대를 연 주역이다.

그는 전한 경제의 아들인 중산정왕의 후손으로 북경 근처 탁현에서 출생했다. 유년시절 공부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꼈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한 한량이었다. 관우와 장비와 “한 해 한 달 한 날에 태어나지는 못해도 한 해 한 달 한 날에 죽기를 원한다”며 도원결의(桃園結義)를 맺었다.

그는 더욱으로 권력을 얻었다. 일찍이 참모 방통에게 “조조와 나는 물과 불처럼 다르다. 그는 조급하지만 나는 느긋하고, 그는 폭력을 앞세우지만 나는 인의를 내세우며, 그는 속임수에 능하지만 나는 매사를 정성으로 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의를 앞세운 정치가 그의 통치 비결인 셈이다. 구체적인 공경과 너그움과 신뢰를 통해 인의를 실천했다. 그는 서주목이 되려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세

라는 이름 전투에서 대패한다. 백제성으로 도망가지만 건강을 해쳐 223년 숨을 거둔다. 그는 공명에게 “그대의 재능은 조비보다 열배나 뛰어나다.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태자가 보필 할 만하면 잘 지켜주고 그렇지 못하면 그대가 대신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공명은 “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성심껏 보좌하고 신하로서 절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더욱으로 권력을 얻었다. 일찍이 참모 방통에게 “조조와 나는 물과 불처럼 다르다. 그는 조급하지만 나는 느긋하고, 그는 폭력을 앞세우지만 나는 인의를 내세우며, 그는 속임수에 능하지만 나는 매사를 정성으로 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의를 앞세운 정치가 그의 통치 비결인 셈이다. 구체적인 공경과 너그움과 신뢰를 통해 인의를 실천했다. 그는 서주목이 되려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세

관우·장비와 도원결의...삼국시대 주역

에게 속아 서주를 빼앗기고 조조에게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다.

200년 관도전투에서 원소의 편에 섰지만 조조에게 대패해 결국에는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위탁하게 되었다. 비육지탄, 할 일이 없이 놓고먹어 넓적다리애 살만 찐다는 뜻으로 이 시절 그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사다.

207년 삼고초려의 예로 제갈공명을 참모로 맞이한다. 그의 겸손한 인품이 공명의 마음을 움직였다. “내가 공명을 만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수어지교(水魚之交) 고사처럼 위대한 군신관계가 시작된다. 오나라를 정벌해 통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조조의 기세를 저지하는 것이 시급했다. 공명은 오나라로 건너가 오·촉 동맹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여세를 몰아 형주를 장악했고 익주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공명이 제시한 천하삼분지계가 실현된 것이다. 214년 형주로 들어가 익주목이 되고 종원 진출의 거점인 한중을 장악해 219년 한중왕이 된다. 221년 촉한의 초대 황제로 옹립된다.

그러나 형주를 방어하던 관우가 오나라의 계략에 속아 목숨을 잃고 촉나

비나 사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적조차도 용서하고 부하로 기용하였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신뢰했다. 장판교 싸움에서 조자룡이 배신했다는 고사 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았다. 참모 공명을 믿어 자신의 사후 정권을 그에게 맡겼다. 공명이 죽을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한 것은 자신을 믿어준 주군에 대한 보답이었다.

면후심흑(面厚心黑). “얼굴은 뽀뽀하고 마음은 검다”는 뜻이다. 후흑학의 대가 리쑹우는 유비와 조조를 대표적인 면후심흑형 인물로 평하였다. 고 비교비마다 그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뽀뽀스러움과 탁월한 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평생 전쟁터를 누볐지만 용병술에는 서툴렀다. 위 황제 조비는 “유비는 용병술에 밝지 못하다”고 혹평하였다.

역사가 진수는 그를 영웅의 그릇으로 평가했다. 흉의관후(弘毅寬厚). 넓은 식견과 강한 의지와 포용력을 들었다. 그러나 “변통에 능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게 계획을 짜는 면에서 조조만 못하였으므로 천하의 한 귀퉁이만을 차지하고 큰 뜻을 펼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활절에...파키스탄 어린이공원 자폭 테러 65명 사상 “탈레반 소행”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州)의 주도인 라호르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27일(현지시각) 자살폭탄 테러가 벌어져 65명 이상이 숨지고 약 300명이 부상했다.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테러범 1명이 라호르 도심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자폭해 최소 65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늘고 있다.

돈은 인터넷에서 경찰 등을 인용해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공원에는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도들이 행사를 열어 평소보다 인파가 많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일간 익스프레스트리뷴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파키스탄탈레반(TTP)의 강경 분파인 자마툴아흐라미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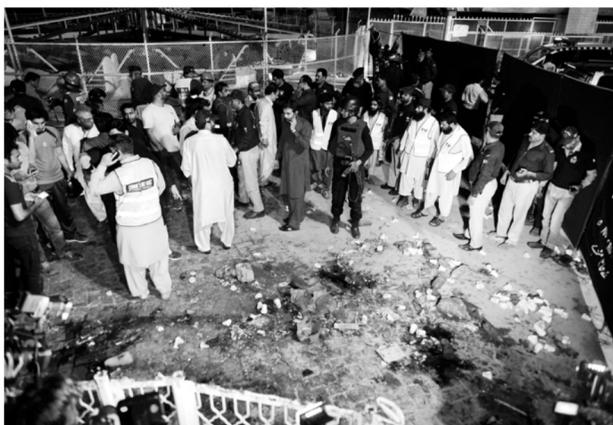
AFP 통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공원에서 배어리가 발견됐으며 자살폭탄 테

러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펀자브 주당국은 시민들에게 현혈을 촉구했으며, 병원에선 현혈하려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다. 주당국은 또 비상사태와 사출간 공식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비겁한” 테러를 규탄하며 파키스탄 당국과 테러리즘 척결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총리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에 전화를 걸어 애도를 표하고 테러 대응에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자마툴아흐라미는 지난 7일에도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툽크와 주의 차르사다 지역 법원에서 자폭 테러를 저질러 17명이 사망한 바 있다.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도이며, 힌두교와 기독교 신자는 소수다.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의 주도인 라호르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27일(현지시각) 자살폭탄 테러가 벌어져 65명 이상이 숨지고 약 300명이 부상했다. 이날 자폭테러 현장에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모습.

회사 사정상 급매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후 20억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3억)후 연 5억원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